박태환 전신수영복 입는다

후원사 스피도 제작 돌입
허벅지·종아리 둘레 등
세부측정부분만 174가지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사진) 후원사인 수영용품 전문 브랜드 스피도가 박태환 전용 전신수영복 제작에 들어갔다.

스피도는 12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스피도코리아 본사에서 박태환의 신체를 정밀 측정했다.

세부 측정 부분만 174가지. 가슴 둘레와 다리 길이, 팔 길이는 기본이고 발목 둘레, 허벅지 둘레, 종아리 둘레, 늑골 밑 부분에서 배꼽까지 길이 등 상당히 복잡하다.

이처럼 박태환의 몸을 세부 측정하는 것은 수영복이 피부처럼 몸에 딱 달라붙어 아무 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그동안 하반신만 덮는 반신수영복이나 짧은 팬츠형,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바지 수영복을 입었다. 상체를 덮는 전신수영복을 입으면 답답했다.

지난달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때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반신수영복을 입었다. 당시 수영복 재질은 스피도가 개발한 'FS(Fast Skin) 프로'.

하지만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 동메달을 따낸 뒤 전신수영복을 착용하기로 결심했다.

다리 부분은 물에 잘 떠 기분이 좋았지만 상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이클 펠프스(미국) 등 특급 선수들이 전신수영복을 입는 걸 지켜보고 결심을 굳혔다.

전신수영복은 상어의 피부를 착안해 만들어졌다. 피부 돌기가 물과 정면으로 닿는 거친 돌기, 물이 몸을 따라 흘러내리는 부분에 위치한 부드러운 돌기 등 2종류로 나눠진다는 점을 따왔다.

팔과 어깨, 다리 등 물과 직접 부딪치는 부위는 거친 옷감을 사용하고 가슴과 복부 등 상체는 부드러운 재질을 써 물의 저항을 최소화했다.

스피도는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일단 일본에 있는 스피도 연구소에 보내 전신수영복 4~5벌을 제작, 한국으로 공수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 신체검사를 통해 박태환에 대한 기초 자료를 갖고 있는 스피도는 크게 고칠 것이 없을 경우 빠르면 5월에 수영복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신수영복은 적응하는 데만 3개월 정도가 걸린다. 빠르면 다음달 초 전용 수영복을 받아들게 되는 박태환은 8월 일본에서 열리는 프레올림픽에서 전신수영복 차림으로 '금빛 물살'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림픽 금 자신 있어요"

펜싱 세계랭킹 1위 남현희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자신 있어요."

한국 펜싱선수로는 처음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여자 플뢰레의 간판스타 남현희(26·서울시청·사진)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향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남현희는 지난 해 12월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여자 플뢰레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한데 이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유럽에서 열린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상급 선수들을 잇따라 제압해 국내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다.

남현희는 5주간 유럽을 돌면서 그랑프리와 A급 월드컵 등 5차례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은메달 2개를 획득해 랭킹을 1위까지 끌어올렸다.

154cm의 작은 키를 만회하려고 남들보다 근육을 많이 쓰다보니 2003년부터 진행된 척추측만증(척추가 휘어지는 증세)의 고통을 딛고 이룩한 귀중한 성과.

5주동안 해외에서 대회를 연달아 치르다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통증이 심해져 힘을 쓰기 어려웠지만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한 찍는 기술이 장기였던 남현희는 찌르기까지 보완해 기술적으로 성장했고 많이 노련해지기까지 했다.

기술을 펴기 위해 상대를 끌어들이는 요령도 늘었고 경기 후반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력 안배도 잘 하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해변 골프대회' 개최

내달 11일부터 3일간
명사십리 해수욕장서

'제1회 최경주 해변 골프대회'가 미국 PGA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의 고향인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완도군은 "다음 달 11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인 '장보고축제' 기간 동안 남해안 최고의 비경과 은빛 모래사장을 자랑하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회 최경주 해변 골프대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접수받아 11일 하루 동안 장타, 니어핀, 벙커샷, 퍼팅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또 축제기간에는 벙커샷, 퍼팅, 스윙체험 등 골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골프 저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참가비는 2만원으로 참가비 일부는 지역 골프 꿈나무 육성 기금으로 지원된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이번 대회는 완도 출신 골퍼 최경주 선수를 활용한 지역 마케팅과 골프 애호가들의 축제 참여로 건강의 섬 완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변 골프대회가 완도군 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G용병 심판 폭행 프로농구 LG 퍼비스 파스코가 12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부산KTF와 경기에서 판정에 항의하며 심판을 폭행해 넘어뜨리자 동료선수들이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재응 16일 출격

올해 두차례 등판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한 서재응(30·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고비를 맞았다.

탬파베이는 12일(한국시간) 서재응이 16일 오전 3시10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메트로돔에서 열리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한다고 예고했다.

6일 뉴욕 양키스전 6.1이닝 5실점에 이어 11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3이닝 동안 홈런 세 방을 맞고 10실점(5자책점)하는 최악의 피칭으로 패전의 멍에를 썼던 서재응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미네소타는 탬파베이의 '천적'이다.

탬파베이는 2002년부터 미네소타에 11연패를 당한 악연이 있다. 또 지난 해에는 투수 트리플 크라운의 주인공인 호안 산타나를 앞세운 미네소타 마운드에 팀 타율 0.175(223타수 39안)의 빈타에 허덕였다.

서재응이 메이저리그 구단 가운데 평균 연령 26.99세로 가장 어린 선수로 구성된 팀 타선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또 미네소타의 홈구장 메트로돔은 탬파베이의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9연패의 악몽이 살아 있는 곳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3일(금)

▲메이저리그〈필라델피아-뉴욕M〉(08 : 00·Xports)

▲북경올림픽 축구 아시아 예선〈북한-이라크〉(13 : 50·MBC)

▲대통령기 전국사이클(14 : 10·KBS1)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야쿠르트〉(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KIA-삼성〉(18 : 30·MBC ESPN), 〈SK-두산〉(18 : 00·KBSN Sports)

14일(토)

▲PGA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 2R(04 : 00·SBS스포츠)

탈모!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www.sensmo.co.kr
100% human hair 프리미엄 맞춤가발
명품가발

Before
After
1. 자연스럽고 편한가발 센스모의 자랑입니다.
2. 센스모는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관리합니다.
3. 센스모는 과도한 광고비 거품을 줄였습니다.
김 현아(지점장)
가발경력 : 10년
전 하이모 지점장
Start Different Life Sens-Mo
Tel.062)676-3545 / 062)432-3545
위치:동아병원과 원광대병원사이 낙농농협 맞은편
타사고객 보상판매 및 관리 | 천안점:041)579-6868 울산점:052)271-7007 순천점:061)745-8522

세계최초 특허출원!!
TV나 PC Monitor에 연결, 언제나 쉽고 빠르게~
영어 자동기억시스템!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 기억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기억시켜주는 기적의 영어학습방법 AMS로 단축된 영어의 세계를 만나자!
☑ 학원이나 학습지보다 10배 이상 빠른 획기적인방법
☑ 특목고 조기 준비생, 각종 영어경시대회빠른 선행학습을 원하는 학생의 최적코스

[성공사례 | 퍼팩트 AMS]

영어학원 원장선생님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결과를 목격하고 있어요—"
저는 영어강의를 현재 18년째 하고, 직접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영어교육을 위해 학원의 명성을 위해 지금까지 좋다는 영어프로그램이 나오면 제일 먼저 도입할 정도로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MS를 학원에 도입하면서 저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생 중, 반에서 영어를 잘 하는 학생도 다 외우기 어려운 중학 1600단어를 초등반 아이들이 30일 만에 거의 완벽하게 다 외워버렸다는 겁니다. AMS는 제가 지금까지 찾던 영어의 보물입니다.

◆은상수상작 학생 조소현 (13세,OO초등학교 6학년 인천)
"AMS! 나의 목적 달성 도우미"
안녕하세요? 저는 조소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6학년이 되는데요. 처음엔, "그냥 기계겠지" 라는 생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건성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주 보는 학원(영어) Quiz 시험 성적이 눈에 띄게 확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학원을 중지하고, AMS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학교재엔 영어뿐만 아니라, 일석 삼~사조의 기능이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각종 영어 능력시험 등은 속된말로 거저먹기였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공인 말하기 능력시험인 ESPT에서 47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은상수상작 학생 신지영 (16세,OO중학교 3학년 경기도)
"영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크나큰 행운 AMS"
AMS는 짧은 시간에 비해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배운 AMS 과정은 지금도 다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으며, AMS를 배우기 전 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영어문장을 읽으면 친구들이 저보고 영어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잘 읽고 이해한다고 부러워 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부모님들 또한 좋아 할 수 있는 팝송까지 들어있어 저희 부녀는 매일 팝송을 틀어놓으며 영어공부를 합니다. AMS를 열심히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친구들이 AMS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어학교재인 만큼 빠르게 홍보는 되겠지만... 좋은 영어 공부법은 서로 공유해야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우연히 AMS를 발견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AMS의 활용분야
각 가정, 모든 학생 필수 –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직장인, 주부, 일반등 전과정 단계별·수준별·영역별 8000개의 컨텐츠로 완벽구성
(주)AMS교육
대표전화 1600–0596